

#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구성체계와 내용 분석

- <II.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

이혜숙\* · 손명철\*\*

## 목 차

- I. 머리말
- II. 제6차 「공동사회(하)」와 제7차 고등학교 「사회」 교육과정 비교·분석
- III. 제7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별 비교·분석
- IV. 바람직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언
- V. 요약 및 결론

## 요 약

본 연구는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II.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구성체계와 내용 요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교과서 내용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원전개방식은 교과서별 차별성이 잘 드러나지 않으나, 소단원 수준에서는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교육과정의 내용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만, 내용 설명이 빈약한 편이다. 전반적으로 학습자료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II 단원의 경우 자연지리 분야라는 특성상 사진자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7차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별화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나 활동이 강화되었고, 학습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는 등 교육정보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에는 주요

\* 제주신성여자고등학교 교사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지리전공) 부교수

개념이나 내용에 대해 좀더 풍부한 설명이 요구되며,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 자료들을 개발하여 교육당국에서 CD 등으로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공급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로 양적인 지표를 통해 교과서별 차별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 질적인 차이, 즉 문장 서술방식이나 내용 요소간·단원간 유기적 연계성 여부, 학습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주요 용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학습자료, 개별화학습

## I. 머리말

### 1. 연구 목적과 방법

사회과 교과서, 특히 지리 부분은 다른 교과서나 사회과 내용과는 달리 많은 지도, 통계,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교과서를 이용하기에 따라 더욱 효율적인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와 같이 학습활동을 거의 전적으로 교과서에 의존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교과서가 학교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을 수 밖에 없으며(최수정, 1998), 따라서 지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리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지리적 사고를 자극해 줄 수 있도록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7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Ⅱ.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주로 구성체계와 내용 요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교과서 내용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비교·분석을 통해 구성체계 면에서의 차이, 내용요소 면에서의 차이, 교수-학습 및 평가 면에서의 차별성을 검토하고, 둘째,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발행된 8종의 검인정 교과서의 구성체계, 내용요소, 학습자료를 비교·분석하여 8종 교과서간의 차이점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셋째, 앞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바람직한 교과서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기초 자료는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 교과서(교학사)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8종의 검인정 「사회」 교과서이다. 그 외에 교육과정 해설서와 다수의 선행 연구 논문 등을 참조하였다. 지리교과서 내용 중 다른 사회과 내용과 확연하게 차별성이 드러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자연지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과서 내용 중 단원 <Ⅱ.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제6차 교육과정의 <Ⅱ. 자연 환경과 생활>)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 2. 사회과 지리 교과서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

### 1) 교육과정별 고등학교 교과서 비교·분석

우선 민홍기(1978)는 교육과정에 따르는 교과서의 자연단원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지리 교육내용 중에서 자연지리 분야의 위치 및 내용의 변천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각 교육과정 시기별로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교과서들을 선정하여 단원 구성, 내용별 취급 현황, 삽화 지도 및 도표의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김소연(1999)은 교육과정 개정의 원리에 의거하여 제6차와 7차 교육과정을 비교하면서, 7차 고등학교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및 특징을 탐색하고 나아가 향후 개선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으로 결정된 「한국지리」는 필수과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승환(1998)은 제5·6차 교육과정 「한국지리」 교과서의 그래픽자료를 사진, 도표, 지도, 그림 등으로 분류하여 교육과정별·교과서별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제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그래픽자료가 훨씬 많아 학습자의 사고와 탐구 활동을 자극하고, 활용가치 또한 크다고 지적하였다.

### 2) 단일 교육과정 내 교과서 내용 비교 분석

먼저 김란주(1999)는 제1차부터 6차 교육과정까지 지리과를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비교하면서, 제6차 한국지리 5종 교과서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는 교과서의 문제점으로 내용이 어렵고 분량이 너무 많으며, 각 지역에 대한 지역적 방법의 학습내용이 부족하고, 교과서에 수록된 학습자료가 실제 수업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최일순(1990)은 제5차 교육과정 개편에 의한 8종 「한국지리」 교과서 중 <자연환경과 생활> 단원의 구성 및 내용상의 변화와 특색을 분석하였다. 교과서 별로 미흡하거나 제외된 내용이 있어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교사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학습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 교과서의 용어사용이 통일되지 않아 학습활동에 혼란을 줄 염려가 있으며, 개념취급에 있어서도 교과서 별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진(1997)은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 교과서의 <생활 공간의 변화> 단원을 중심으로 5종 교과서의 학습목표, 학습 내용, 평가 문항 등이 어떻게 구성, 조직되어 적용되었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데, 지식 영역의 비중이 전체 70.6%를 차지하고 있어 지식 위주의 일방적인 내용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주희(1995)는 문화지리교육은 학교에서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져야 하는가를 고등학교 8종 지리교과서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 문화단원은 지리적 원리나 사실을 찾아내기보다는 연구된 결과를 나열하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용어가 너무 어려우며 구성상의 혼란이 엿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수정(1998)은 고등학교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 중 <Ⅲ. 생활 공간의 변화> 단원의 내용을 정량적 분석방법과 정성적 분석방법에 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연구문제 등의 탐구적인 새로운 시도들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라기보다 교사 중심적인 교과서라고 결론지었다. 박소영(1995)은 전통적으로 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다루어 온 지리교과가 환경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한국지리」 8종 교과서 모두 환경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영역을 다루고 있어서 「한국지리」를 통한 환경교육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 3) 초·중·고 연계 및 외국 교과서와 비교 분석

박성애(1997)는 초·중·고 세계지리 단원상의 학습자료를 사진, 지도, 도표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있는데, 교과서에 수록되는 학습자료는 학교급 별로 기본 개념, 영역을 고려하여 교과내용에 적합한 학습자료가 적절한 양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자료의 질적인 면에서 사진 자료의 선명성과 참신성, 지도자료의 제작과 표현기법, 도표 자료의 정확성이나 통계자료의 최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박종화(1996)는 초·중·고 사회과 지리교육 내용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교과서가 학생중심의 탐구학습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제6차 교육과정의 초·중·고등학교 지리교과서는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도가 매우 낮은 권위주의적 교과서로서 이것은 현실 교육이 탐구 학습형으로 진행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양원택(1997)은 한·중·일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리교과서의 국제이해 관련 내용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 및 질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지리교과서가 국제 이해 교육을 위해 효율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한·중·일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의 구성 및 내용 체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요컨대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분석은 단일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 비교를 통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지리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용이 어렵고 분량이 많으며 실제 수업시 이용하기에 자료가 부족한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지리교과에서 충분히 환경교육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으며, 세계 이해 교육에 대한 역할도 세계지리 교과에서 그 몫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중학교 교과서보다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편이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분석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6차와 7차 교육과정상의 비교를 통하여 교육과정상의 차이와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II. 제6차 「공통사회(하)」와 제7차 고등학교 「사회」 교육과정 비교·분석

### 1. 구성체계 면에서 비교

교육과정 상에서 본 제6차와 제7차의 교과서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다. 6차 교육과정(1996 - 2002)에서 「한국지리」는 「공통사회」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지리」의 내용은 학문적인 체계,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통일과 미래의 국제 사회에 대한 대비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접근 방법은 국토 공간을 계통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지리 부분에서는 개발 정도에 따라 지역성이 뚜렷한 지역을 선정, 계통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전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교과서와 비교해보면, 국토의 이해와 환경교육을 강화시켜 편성하였고, 통일 대비 학습을 위한 단원이 신설되어 북한에 대한 지리적 정보와 통일 후의 국토의 변화 등을 예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자세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였다(교육부, 1995).

한편 제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좀더 심화하여 계통성, 통합성, 심층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하였다. 국사 교육과정이 별도로 제시되므로 고등학교 지리(인간과 공간) 영역과 일반사회(인간과 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각 영역에서 세계사 관련 내용을 통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년별 내용을 기본 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성취 수준으로서의 기본 개념, 아이디어와 다양한 학습 활동을 결합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 관심과 능력의 차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교육부, 2000).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모두 10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V.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과 <VI. 시민 사회의 발전과 민주 시민> 단원은 역사(인간과 시간)와 지리 영역의 통합단원이다. 각 대단원마다 3개의 중단원 그리고 중단원마다 2~9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교과서 내용 조직은 8종 모두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조직되었으며, 특히 심화과정은 대부분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 및 수와 일치하도록 조직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는 제6차 교육과정 「공통사회(하) 한국지리」에 비하여 중단원 수와 내용 항목에서 교수 내용이 줄어들었다. 이는 최소한의 원리를 학습함으로써 단순한 지리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환경문제와 같은 우리 일상 속에서 생활화되어야 할 주제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제시하여 그 동안에 문제가 되었던 교수 내용의 적정화를 이루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김소연, 1999).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II단원의 구성을 보면 위치와 영역, 기후, 식생과 토양, 지형, 해양 순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제7차 교육 과정의 사회 II단원은 '지형과 인간 생활', '기후와 인간 생활', '환경과 자연 재해' 순으로 배열되어 지형이 기후보다 먼저 서술되고 있고 최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과 자연 재해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소단원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내용요소 면에서 비교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 <II. 자연 환경과 생활> 단원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주환 외, 2000).

(가) 위치와 영역 - 위치의 중요성, 영역

(나) 기후 - 기후와 인간 생활, 우리 나라 기후의 특색, 기후 요소별 특징, 기후 지역 구분

(다) 식생과 토양 - 기후·식생·토양의 상호 관계, 식생의 분포, 토양의 분포

(라) 지형 - 지형 형성작용, 한반도의 형성, 산지와 고원, 하천과 평야, 해안과 도서

(마) 해양 - 해양과 생활, 해저 지형, 조류와 해류

이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 <II.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단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주환 외, 2001).

(가) 지형과 인간 생활 - 산지와 고원, 주요 하천 지형과 평야, 해안 지형과 해양

(나) 기후와 인간 생활 - 우리 나라와 세계의 기후 특색, 기온 분포의 지역차, 우리 나라의 강수 특색, 우리 나라의 다우지와 소우지

(다) 환경과 자연 재해 - 지진과 화산 활동에 의한 피해, 강수량의 과다에 따른 자연 재해, 태풍의 발생과 피해 대책

이들을 비교해 보면, 제6차에서 언급되었던 위치, 영역이 제7차에서는 11~12학년 심화 선택과목으로서의 「한국지리」 I 단원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식생과 토양, 해양 역시 제7차 교육과정 「한국지리」로 넘겨주어 고등학교 「사회」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교수-학습 및 평가 면에서 비교

제6차 교육과정에서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 <II. 자연 환경과 생활> 단원은 우리 나라 전체의 자연적 특징에 대해 처음으로 계통적인 학습을 하게 되는 단원으로 기후, 식생, 토양, 지형, 해양 등에 대한 사실 및 개념 인식도 중요하지만, 이들 자연 환경의 구성 요소들이 따로따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관련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교육부, 1995). 따라서 교수-학습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과 자료의 활용, 지역과 학교의 특성 반영 및 시사 자료 활용, 비교과 학습의 강조 등이 주안점이었다.

이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 <Ⅱ.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단원은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이 어떤 관련을 맺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간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자연 환경의 요소인 지형과 기후, 자연 재해,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수준별 지도, 주제·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의 조화, 탐구를 위한 학습 환경의 조성, 정보화 시대의 자료 활용 등이 교수-학습 방법의 강조점을 이루고 있다(교육부, 2000).

제7차 고등학교 지리과 교육과정에서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고, 학교는 다양한 평가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수준별 교육과정의 정신에 따라 학습자 개인의 성취 수준이 상이한 것을 고려하여 학습자 각자의 진도와 성취도 변화가 평가되도록 할 것, 지필 평가 외에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평가 요소들이 지식 영역에만 치우쳐서는 안되며 기능과 가치·태도 영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이고도 균형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할 것, 사고력 신장이나 가치, 태도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와 더불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하도록 할 것 등이다(교육부, 1997).

제7차 교육과정 평가는 제6차에 비해서 평가 계획과 실시, 활용에 관한 지침들이 방법들과 조화를 이루며 제시되었고, 목표·내용·방법과의 일관성을 이루었다. 또한 학생이 성취해야 할 교과별 성취기준을 근거로 설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였다. 특히 제6, 7차 교육과정 평가의 방법 면에서는 모두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태도 및 관찰 평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의 평가는 평가의 내용을 지식적, 기능적, 가치·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면서도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가 되도록 고려하였다.

### III. 제7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별 비교·분석

#### 1. 구성체계

본 장에서는 고등학교 「사회」 8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각각 알파벳 기호로 표시하여<sup>1)</sup>,

- 1) A : 허우강 외(2002),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교학사.
- B : 최병호 외(2000),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 C : 송봉호 외(200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두산.
- D : 오정섭 외(200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 E : 김재현 외(200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범문사.

단원 전개 방식, 분량 비중, 내용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단원 전개 방식

여기서는 <Ⅱ.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단원의 교과서별 단원 전개 방식의 특징과 차이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래 <표 1>은 교과서별 단원 전개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각 교과서별 단원 전개 방식 비교2)

교과서 단원전개	A	B	C	D	E	F	G	H
대단원		단원안내 사진		단원안내사진 단원도입글	단원안내사진			단원 도입글
	대단원명 단원안내사진	대단원명 단원개요	대단원명 단원안내사진 생각해보기	대단원명	대단원명	대단원명 단원도입글 사 진	대단원명 단원안내사진 단원의길잡이 학습목표	대단원명 단원도입글 사진
중단원	중단원명	중단원명	중단원명	중단원명	중단원명	중단원명	중단원명	중단원명
			학습목표	중단원도입글		학습의주안점 중단원도입글	학습목표	중단원도입글
	소단원명 학습목표 - 시작하며 생 각하기	소단원명 중단원 도입글 학습목표	소단원명	소단원명 학습목표	소단원명 학습목표		소단원명 생각해보기	소단원명 학습목표
	본문	본문	본문	본문	본문	본문	본문	본문
		집중탐구			사례탐구	참고자료		
	자료분석 활동	열린과제	탐구활동	활동	탐구활동	탐구활동	탐구활동	탐구활동
	조사활동 세상 알아보기 토론활동	지구촌탐방인 터넷여행	보충	읽기 자료 인터넷 관련 자료	사례탐구	읽기 자료	읽기 자료	자료실 읽기마당
						공부한 내용 확인하기	마무리 학습 확인하기	
	좀 더 알기	심화학습	심화과정	더 생각해보기	심화학습	심화과정	심화과정	심화학습
	단원마무리 주요내용 정리	단원정리	단원마무리 주요내용 정리	대단원마무리 주요내용 정리	단원마무리 내용정리	단원정리 단원내용 확인	단원마무리 내용정리	단원학습정리 단원내용 정리
영화보기	- 퍼즐로 주요용어 정리	단원정리 문제 제시		학습요소정리 수행평가	단원정리문제 제시	자기진단 문제	퍼즐로 용어 학습	
	이 단원의 활동					선택활동과제		
비고	용어 설명		보충 설명	용어 설명	용어 설명	용어 설명		보충 설명

A 교과서는 대단원의 개요 부분에서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과 학습 포인트를 정리

F : 김주환 외(200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G : 황만익 외(200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지학사.

H : 박종희 외(2002).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천재교육.

2) 8종 교과서의 단원 전개 방식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같은 글씨로 표시하였음.

해주고 있다. 중단원 시작과 더불어 학습목표가 제시되고, <시작하며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본문 중에 어려운 개념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있으며, 여백에 주요 개념을 정의해놓아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다양한 사진과 그림을 제시하면서 분석활동, 모둠활동, 조사활동 등을 제공하며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기사를 통해 실제 생활과 학습내용을 관련지으며, <좀 더 알기>를 통해 보다 심화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원 마무리에서는 간단한 서술 문장으로 단원학습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주제에 어울리는 '영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 교과서는 사진을 통해 학습내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학습의 주안점이 무엇인지를 단원 개요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 중단원에서는 <생각돋움>으로 학습내용에 대한 질문과 함께 본문을 시작하고 있으며, 텍스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진, 탐구, 과제 등이 제시되며 애니메이션이 적절하게 이용되어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중단원 끝부분마다 심화학습 과정을 넣어 수준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단원 마무리는 간단한 내용 정리와 더불어 퍼즐을 통해 주요 용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C 교과서는 대단원 제목과 함께 적절한 사진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옆 페이지에 작은 크기의 관련 사진을 여러 개 나열함으로써 학습할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단원 개요에서도 자연이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단원에서 <생각해 보기>를 넣어 핵심사항을 짐작케 하고 있다. 중단원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소단원 제목도 질문형식으로 짜여 친근감 있게 학습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본문 내용으로 모자란 부분은 <보충>이라는 타이틀로 보다 자세하게 부연 설명해주고 있으며, 다양한 탐구 활동과 중단원 중간에 심화과정을 넣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으며 단원설명 옆 여백에 본문 중의 특정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 단원 마무리는 간단한 그림 모양의 표로 정리하고 있으며, 마무리 테스트로 간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D 교과서는 단원개요에서 강렬한 이미지의 사진과 함께 질문을 던지면서 단원을 열어가며, 단원개요 오른쪽 페이지는 중단원, 소단원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목차를 두었다. 중단원 제목 밑으로 단원을 시작하면서 의문을 가질만한 것을 질문으로 던져서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풍부한 사진과 사진 제목 밑에 자세한 설명을 달아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여백에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주고 소단원 제목을 의문형 또는 대화형으로 달아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소단원마다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하나씩 제시하고 있다. <활동>과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사이트 주소를 알려 주고 있다. 심화 과정으로 <더 생각해 보기>가 중단원 마다 소개되고 있으며 <대단원 마무리>에서 간단히 주요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다.

E 교과서는 단원안내 사진과 단원전체를 소개해 주는 도입 글, 글을 보충해주는 몇 장의 사진으로 시작한다. 각 소단원마다 한가지씩 학습목표를 제시해주고 있으며 본문 여백에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주고 있다.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요모조모>나 <사례 탐구>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으며, 중단원 말미에 <심화학습>이란 제목으로 심화과정을 넣어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단원 마무리>에서 기억해야할 학습요소와 간단한 내용 정리를 통해서 대단원을 종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행평가>라는 제목으로 마무리 활동과 <여론 광장>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과제를 조사하고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면서 학습정리를 유도하고 있다.

F 교과서는 대단원명 아래 단원의 특징을 알 수 있는 이미지 사진을 실고,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대화글이나 편지글을 통해 이 단원에서 배워야 할 주안점을 짐작케 해준다. 대단원 학습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중단원마다 '학습의 주안점'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학습목표가 재차 제시되고 있다. 중단원에서 소단원으로 세분될 때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여백에 용어 정리를 해두어 학습을 돕고 있다. 소단원 안에 다시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용될까', '...만들어질까' 등 질문의 형태로 제목을 뽑고 있으며, 본문 안에 중요한 개념인 경우 굵은 글씨로 처리하여 학습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다양한 탐구활동과 읽기 자료가 제시되고 있으며, 중단원 마무리에 <공부한 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도와주고, <심화 과정>을 통해 수준별 수업을 유도하고 있다. 적절하게 애니메이션을 이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며, <단원의 정리>를 통해 대단원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며 <단원 정리 문제>를 통해 한번 더 내용을 인식토록 하고 있다. 사진 배열상의 문제 때문에 페이지가 가끔 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다.

G 교과서는 대단원명 아래 대단원의 학습목표에 해당하는 내용을 글로 풀어 제시하면서 학습의 주안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원 도입 사진을 제시하면서 작은 단추 모양의 사진을 몇 개 더 나열하여 이 단원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도록 하고 있다. 중단원 시작과 함께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소단원 본문 관련 예를 찾아 지문을 제시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탐구 활동과 <한걸음 빠른 지리 뉴스>라는 제목으로 읽기 자료를 제시하며 중단원 말미에 <마무리 학습>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심화과정>을 두어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단원마무리를 통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자기 진단 문제, 선택 활동 과제를 제시하여 다시 한번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H 교과서는 단원 도입글과 대단원명, 대단원안내 사진으로 단원을 시작하고 있다. 중단원명과 함께 <단원열기>라는 제목으로 중단원 도입글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단원마다 한 개씩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문 여백에 개념 정의나 부연 설명을 해두고 있다. <자료실>을 통하여 본문에 쓰는 용어를 사진,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읽기 마당>을 통해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중단원

말미에 <심화학습>을 두어 수준별 수업을 도우며, <단원학습정리>에 간단히 단원 내용을 정리해두고, 피즐을 통하여 용어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분량 비중

각 교과서의 전체 면수를 분량이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E와 F 교과서가 351면으로 가장 많으며, B와 G 교과서는 327면, H 교과서는 319면, A와 D 교과서가 311면, C 교과서가 가장 적은 303면을 보여 가장 많은 면수를 나타내는 교과서와의 차이가 48면에 이른다. 교과서 총 면수에 대한 II단원의 비중은, D 교과서가 12.9%(40면)로 가장 높으며, E 교과서가 9.7%(34면)로 가장 낮게 나타나 D 교과서와 3.2%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과서의 절대 면수는 A와 E 교과서가 각각 34면으로 가장 적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10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한 교과서만 빼곤 나머지 모두 10%를 넘어 II단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각 교과서의 중단원별 비중을 비교해보면, '1. 지형과 인간 생활'이 평균 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2. 기후와 인간 생활'이 평균 30.2%, '3. 환경과 자연 재해' 단원이 평균 24%를 차지하여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인다. 이것은 자연지리 분야에서 지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다.

교과서별로는, '1. 지형과 인간 생활'은 가장 비중이 큰 B, D 교과서와 가장 적은 E 교과서와의 차이가 10.6%나 되며, '2. 기후와 인간 생활'은 가장 비중이 큰 C, F, G 교과서와 가장 적은 B 교과서의 차이가 8.3%로 나타나고 있다. '3. 환경과 자연 재해'는 비중이 가장 큰 E 교과서와 가장 적은 G 교과서와의 차이가 10.4%로 격차가 커서 교과서간 중단원별 비중 차이가 현격함을 알 수 있다.

## 3) 내용 구성체계

제7차 교육과정 8종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중단원명까지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어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양성을 보여 주는 소단원 중심으로 분류해 보았다.

소단원 숫자는 D 교과서가 23개로 가장 많으며, H 교과서가 13개, B 교과서가 12개, A 교과서가 11개, C 교과서가 10개, 나머지 E, F, G 교과서가 각각 9개로 가장 적어 단원 구성에서 숫적인 차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D 교과서는 소단원 밑에 직접 본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교과서들은 소단원 아래 다시 세분된 소주제를 제시하여 학습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단원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형과 인간 생활'은 지형에 대해 설명해 놓은 단원으로 산지, 고원, 하천, 해안 지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마다 순서는 동일하며 소단원 숫자는 적게는 3개(G 교과서)에서 많게는 11개(D 교과서)까지 그 차이가 크다. 하지만 교과서마다 소단원 아래 소주제를 따로 정하여 내용을 다양하게 풀어나가고 있다.

2. '기후와 인간 생활'은 기후 단원으로 모든 교과서가 기후 요소와 기후 인자, 기온, 강수량 순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 교과서에 비해 세계 기후의 개략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하려 하고 있으며 A, E, G 교과서는 가장 적은 3개의 소단원을 가지고 있으며 B, C, F, H 교과서는 4개, D 교과서는 7개를 가지고 있어 소단원 수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3. '환경과 자연 재해'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없던 단원으로 지진과 화산, 홍수와 가뭄, 태풍 순으로 배열을 하고 자연 재해에 대한 설명을 전개하고 있다. 단 C 교과서만 홍수와 가뭄, 태풍을 먼저 서술하고 나중에 지진과 화산을 설명하고 있어 소단원 기술 순서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D 교과서는 소단원 하나에 지진과 화산, 산사태, 홍수와 가뭄, 태풍을 모두 기술하고 다음 소단원에서 재해 발생 지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연 재해가 많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가고 있어서 다른 교과서와는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게 시도되고 있다. 소단원 숫자에 있어서도 C 교과서는 2개, D 교과서는 5개로 차이가 있다.

소단원 제목을 보면, A, F, G, H 교과서는 '자연 재해', '지진과 화산' 등 소단원 제목을 요점 중심으로 간단히 기술하고 있으며, B, E 교과서는 '지역에 따라 분포가 다른 기온',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인 강수' 등 서술형으로 풀어서 제시하거나 '사람과 산이 만 들어 가는 너럭담', '거대한 보물 창고인 바다' 등 은유형의 표현을 쓰고 있다. 그에 비해 C, D 교과서는 '... 어떻게 이용할까', '...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등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시도하고 있다.

## 2. 내용요소

여기서는 각 교과서의 내용체계 분석을 통하여 교과서간의 내용요소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내용체계 구성은 객관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각 교과서마다 개념의 계층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을 미리 설정해 놓고 각 교과서 별로 내용을 분류한 것이 아니라 각 교과서의 내용을 상대적으로 비교·고찰하였다.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며, 해당 내용의 분량이나 질적인 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우선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II단원 내용 항목수를 비교해보면 H (40개) → C (38개) → A (37개) → E (34개) → D, F (33개) → G (31개) → B (29개) 교과서 순이다. 최다와 최소의 차이는 무려 11개나 된다.

제7차 교육과정상의 교과서를 제6차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문 내용은 줄어든 반면 각종 탐구활동이 늘었고 학습자료도 풍부해졌다. 제6차 교과서에서는 친절하게 본문에 학습 내용을 모두 서술해 주는 방식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었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각각의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된 것이 많다. 그래서

활동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습 요인을 충분히 익히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내용 요소를 분석할 때도 본문에 문장으로 서술된 것이 적어서 탐구 활동 중 주제에 대한 질문만 던지고 학습자로 하여금 결과를 도출하도록 유도한 것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lt;표 2&gt; 교과서별 내용 항목 수

(단위 : 개)

대단원	교과서 중단원	A	B	C	D	E	F	G	H	평 균
	Ⅱ.자연 환경과 인간생활	1. 지형과 인간 생활	13	12	14	14	14	14	12	18
2. 기후와 인간 생활		12	10	15	9	10	9	13	11	11.1
3. 환경과 자연 재해		12	7	9	10	10	10	6	11	9.4
계		37	29	38	33	34	33	31	40	34.4

### 1) '지형과 인간 생활' 단원

각 교과서의 내용체계를 분석해 보면 총 항목수가 22개인데 적게는 12개에서 많게는 18개의 항목이 교과서마다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지, 고원, 평야, 해안 지형, 우리 나라 하천의 특징(심화과정의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모두 다루고 있지만 '해수면 변동'이 지형 형성과 관계가 깊다고 했을 때 소단원 또는 소주제로 간략하게나마 설명이 있어야 했는데 H 교과서만 소주제로 언급하고 있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또 '인간에 의하여 하천이 변한다'라는 소주제로 인간의 활동, 즉 댐 건설이나 하천 직강화에 의한 하천 지형의 변화에 대하여 E 교과서가 유일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D 교과서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전체적인 지형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

### 2) '기후와 인간 생활' 단원

다루고 있는 총 항목수는 24개인데 교과서마다 9개에서 15개의 항목을 교과서에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화 과정으로 제시된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는 계절풍, 지방풍'에 대해서는 8종 교과서 모두 지방풍으로 늦새바람을 예로 들고 있으며 B, C, H 교과서는 늦새바람 이외에 해풍, 육풍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있지만 D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는 달리 주제

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 보인다. 다른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우리 나라 기후, 세계의 기후를 설명하는 대신 기후의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와 그 결과, 식생 및 토양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기후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와 관련된 농업, 온실 효과와 관련한 지구의 기온 상승 등 타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교과서 대부분이 설명하고 있는 기온 분포의 지역 차나, 기온과 관련된 주민생활, 우리 나라의 강수 분포, 강수와 관련된 지역 차 등에 대한 설명은 없어서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기초적인 기후 지식을 주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 결국 우리 나라 기온이나 강수량과 관련된 데이터나 지식은 교사가 따로 자료를 제시해 주거나 학습자 스스로 찾아내도록 해야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시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온실 효과나 엘니뇨에 관한 내용은 각각 D 교과서와 C, H 교과서만 다루고 있어 아쉬움을 준다.

### 3) '환경과 자연 재해' 단원

다루고 있는 총 항목수가 15개인데 비해 각 교과서들은 6개에서 12개까지 차별적으로 내용을 싣고 있다. 물론 15개의 항목이 모두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교과서에 따라 다루고 있는 내용이 2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격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8종의 교과서 모두 지진과 화산의 발생요인·특성, 지진으로 인한 피해 줄이기, 홍수의 특성, 태풍의 발생과 진로, 심화 과정으로 '우리 나라에 피해를 준 태풍'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사태에 대한 내용은 D, E 교과서만이 서술하고 있으며, 산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E 교과서만이 언급하고 있어서 아쉬움을 준다.

교육과정에 따르면 '특히 자연 재해와 관련된 환경 문제가 특정한 자연 환경 조건을 지닌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D 교과서만이 '자연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인가?' 라는 소재목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 3. 학습자료

지리학습에서는 지리적 사실이나 개념,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고양시키기 위해 표, 사진, 그림, 지도 등의 학습자료를 교과서에 싣고 있다. 특히 II단원은 자연지리 분야로, 직접 현장에 가서 관찰할 수 없는 곳을 학습자료를 통해 간접적인 관찰과 탐색이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하므로 학습자료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연지리 단원에서 학습자료의 분석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학습자료를 도표, 사진, 그림, 지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도표에는 표와 그래프, 밴다이어그램을 포함했으며, 그림은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모식적인 그림을 말하며, 특정 지형을 3차원적으로 표현한 그림과 특정 주제를 설명한 만화를 포함시켰으며,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그려진 만화의 여러 컷은 하나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지도는 모식적인 지도까지도 포함시켜서 계산하였다. 사진은 항공사진, 위성사진을 포함하였다. 특정한 지역의 특색을 사진으로 표현하면서 옆에 그 지역의 위치를 짐작케 해주기 위해 표기된 작은 지도는 동일 주제로 보아 지도의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다.

자연지리 부분인 II단원은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에 비해 사진 자료가 많은 편이며, 지형 형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모식적인 그림도 많은 편이다. 그런 이유로 사진과 그림 두 가지를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시간 변화에 따른 연속적인 사진이나 그림, 상황 전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사진이나 그림, 동일한 주제를 나타내는 그림 등은 하나로 취급하여 계산하였다.

<표 3> 교과서별 II단원 학습자료 비중<sup>3)</sup>

(단위 : 개)

학습자료 \ 교과서	A	B	C	D	E	F	G	H	평균	%
도표	5	9	11	14	4	4	9	4	7.5	7.6
사진	63	50	29	74	34	43	58	57	51	51.7
그림	24	14	14	17	11	21	17	39	19.6	19.9
지도	18	27	20	12	16	16	35	20	20.5	20.8
계	110	100	74	117	65	84	119	120	98.6	100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서별 학습 자료의 총수는 H 교과서가 120개로 가장 많으며 그림의 비중이 다른 교과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G 교과서가 119개, D 교과서는 117개, A 교과서는 110개, B 교과서는 100개, F 교과서는 84개, C 교과서는 74개, E 교과서는 65개를 차지해 가장 많은 학습자료를 갖고 있는 H 교과서에 비해 55개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학습자료별로는 도표가 평균 7.5개로 전체 학습자료 중 7.6%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 자료는 평균 51개를 차지하여 전체 학습자료 중에서 절반이 넘는 51.7%를 차지한다. 자연지리 분야라는 특성과 관련되어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은 평균 19.6개로 학습자료 중에서 19.9%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도 자료는 평균 20.5개로 전체 학습자료 중 20.8%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진 다음으로 비중 있는 학습자료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8종 교과서의 단원별 학습자료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4 참조).

1. '지형과 인간 생활'이 평균 40.5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2. 기후와 인간 생활' 단원이 35.1개, '3. 환경과 자연 재해' 단원이 평균 21.9개, 단원 마무리가

3) 단원 개요의 사진은 사진의 수에서 제외함.

1.2개 순이다. '지형과 인간 생활'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지형은 지형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보식적인 그림이나 특정 지형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진 등이 많이 필요한 것과 관련된 결과로 여겨진다.

1. '지형과 인간 생활'과 '3. 환경과 자연 재해' 단원은 사진 자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그림, 지도, 도표 순이다. '2. 기후와 인간 생활' 단원은 그림, 지도, 사진, 도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원마무리에서는 학습자료가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으나 A, B, F, H 교과서에서 도표를 뺀 사진, 그림, 지도가 각각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단원별 학습 자료의 비중<sup>4)</sup>

(단위 : 개)

단원		교과서								
		A	B	C	D	E	F	G	H	평균
1. 지형과 인간생활	도표	2	1	0	1	1	1	2	0	1
	사진	31	32	11	42	19	18	17	27	24.6
	그림	10	7	10	9	7	7	7	14	8.9
	지도	3	9	6	4	1	7	14	4	6
	계	46	49	27	56	28	33	40	45	40.5
2. 기후와 인간생활	도표	0	6	6	8	3	0	5	1	3.6
	사진	18	9	10	17	6	15	27	10	14
	그림	11	4	4	6	2	7	6	15	6.9
	지도	12	12	10	6	12	7	14	12	10.6
	계	41	31	30	37	23	29	52	38	35.1
3. 환경과 자연재해	도표	3	2	5	5	0	3	2	3	2.9
	사진	11	8	8	15	9	6	14	20	11.4
	그림	3	3	0	2	2	7	4	9	3.8
	지도	3	5	4	2	3	2	7	4	3.8
	계	20	18	17	24	14	18	27	36	21.9
단원 마무리	도표	0	0	0	0	0	0	0	0	0
	사진	3	1	0	0	0	4	0	0	1
	그림	0	0	0	0	0	0	0	1	0.1
	지도	0	1	0	0	0	0	0	0	0.1
	계	3	2	0	0	0	4	0	1	1.2

4) 단원 개요는 각 교과서 모두 2쪽에 걸쳐 있으며 도표, 그림, 지도 대신 사진자료가 있는데, 단원 개요의 사진은 전체 학습자료의 개수에 포함하지 않았음.

### 1) 도표

도표의 비중을 교과서별로 비교해보면, D 교과서가 14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C 교과서가 11개, B, G 교과서가 각각 9개, A 교과서가 5개, E, F, H 교과서가 4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일 많은 교과서와 제일 적은 교과서와의 격차는 10개로 그 차이가 크다.

단원별 비중을 분석해보면, '2. 기후와 인간 생활'이 29개(평균 3.6개)로 가장 많으며, '3. 환경과 자연 재해'가 23개(평균 2.9개), '1. 지형과 인간 생활'이 8개(평균 1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A나 F 교과서는 '2. 기후와 인간 생활'에서 도표 자료가 하나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중단원 '2. 기후와 인간 생활'이 도표가 제일 많은 것은 기후 부분은 통계치가 많이 필요하고 이것을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과 연관이 깊다. '2. 기후와 인간 생활'에서 보여지는 도표의 대부분은 기후그래프나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가 대부분이다. '3. 환경과 자연 재해' 단원에서는 주로 자연 재해에 의한 피해정도나 피해액, 강수량의 변화 등을 나타낸 표가 다수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제6차 교과서에 비해 전체적으로 컬러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래프 등을 보기가 훨씬 쉬워졌다. 그러나 A 교과서 58쪽의 도표는 제목이 표시되지 않아 학습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B 교과서 51쪽의 '같은 위도에 위치한 각 지역의 1월과 7월 기온'은 동안 기후와 서안 기후의 차이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으나, 막대기 길이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 C 교과서 66쪽의 밴다이어그램을 보면 언제, 어디를 대상으로 한 통계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D 교과서 69쪽의 지진과 화산의 활동 지역에 관한 도표를 보면 90년대 이후의 예를 들고 있지 않아 다른 교과서에 비해 자료의 신선함이 떨어진다. G 교과서 50쪽의 하상 계수를 나타낸 표를 보면 낙동강의 하상 계수를 1 : 327로 표기하고 있어 다른 교과서의 1 : 372와 달리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 2) 사진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는 흑백사진을 실어서 사진의 선명도가 떨어졌었지만 제7차 교과서는 지질(紙質)이 향상되었고 컬러 사진이어서 가시성이 높아졌다. 특히 제7차 교과서에서는 사진이 탐구활동에 사용되는 등 학습 활동을 전개하는 데 직접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져 사진의 선명도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 사진의 경우 외국도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진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심정규, 2002).

사진의 비중을 교과서별로 비교해보면, D 교과서가 74개로 가장 많으며, A 교과서가 63개, G 교과서가 58개, H 교과서가 57개, B 교과서가 50개, F 교과서가 43개, E 교과서가 34개, C 교과서가 29개를 차지하고 있다. 제일 적게 수록한 C 교과서는 제일 많은 D 교과서와 비교해 45개나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표 4>. 실제 답사를 통해서 지리 공부를 한다면 무엇보다

다도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학생들이 지리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진일 것이다. C와 E 교과서는 그런 면에서 좀더 사진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중단원별로 사진 자료를 분석해보면, '1. 지형과 인간 생활' 단원이 평균 24.6개로 제일 많으며, '2. 기후와 인간 생활'이 평균 14개, '3. 환경과 자연 재해' 단원이 평균 11.4개, 단원 마무리 평균 1개 순이다.

사진 자료의 특징을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교과서는 우리 나라의 사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를 볼 수 있는 자료 사진들을 많이 수록하여 본문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다. 사진 제목 밑에 간단하게 설명을 달아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다. B 교과서는 사진을 입체적인 그림이나 지형도와 함께 배열하여 사진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화질이 선명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46쪽의 피수대 사진은 설명을 읽더라도 다른 지역과 차이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다. C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사진 자료가 적어 아쉬움을 주고 있으며, 56쪽의 해수욕장과 스키장 사진은 선명도가 떨어진다. D 교과서는 우선 다양한 사진 자료가 풍부히 수록되어 있으며, 사진 제목 옆에 간단한 해설이 부기되어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사진 속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된다. E 교과서는 타 교과서에 비해 사진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하천에 의한 평야 지형, 해안 지형 등을 설명하면서 그림으로 위치를 알려주고 실제 형성되는 지형을 사진으로 알게 해주는 시도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커 보인다. 49쪽의 해안 분지 사진은 한 컷으로 잡기 어려운 지형인데도 한 장으로 처리하여 분지지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나, 50쪽의 삼각주 그림은 삼각주를 설명하기보다는 갈대 집을 소개하는 사진으로 알맞아 보인다. 61쪽의 '제주도 감귤 재배 농장' 사진과 75쪽의 '강풍으로 떨어진 과일' 사진은 선명도가 떨어져 아쉬움을 준다.

F 교과서를 보면 45, 46쪽에서 지형 사진과 함께 지형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형적인 공통점만이 아닌 사진 속의 장소와 일치하는 지형도를 제시했다. 더 좋았으리라 생각된다. 사진에 대한 욕심 때문에 과감히 잘라내지 못해 사진에 페이지가 자주 가려지는 점은 교과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다. G 교과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사진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나 타교과서에 비해 사진 자료가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 않으며, 사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인쇄상의 문제인 듯 보이는데, 선명도가 떨어지는 사진이 여러 개 있다. 끝으로 H 교과서는 지형 사진과 함께 그러한 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을 담은 모식적인 그림을 함께 배치하여 지형 이해를 돕고 있으며, 특정 사진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지도를 같이 첨부한 것도 장점으로 보인다. 사진 속 공간의 구체적인 장소를 소개한 것도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고 사진을 신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 3) 그림

그림은 사진처럼 직접 사물이나 실제의 상황을 볼 수 없거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때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강한 인상을 오랫동안 남길 수 있는 자료이다. 교과서 그림 자료는 상황과 대상의 표현, 본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제시, 추상적인 개념을 분석하는 도구 제공, 본문에 활기를 제공, 학생의 주의를 끌고 분위기를 형성하는 등의 기능을 발휘한다(이승환, 1999).

그림의 수는 H 교과서가 39개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A 교과서가 24개, F 교과서가 21개, D, G 교과서가 각각 17개, B, C 교과서가 각각 14개, E 교과서가 11개로 가장 적다. 가장 많이 수록된 H 교과서와 가장 적은 E 교과서와의 차이가 무려 28개나 되며, 평균적으로 19.7개이다.

'1. 지형과 인간 생활' 단원이 평균 8.9개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2. 기후와 인간 생활'이 6.9개, '3. 환경과 자연 재해' 단원이 3.8개로 뒤를 잇는다. 단원마무리는 H 교과서에 하나의 그림만 수록되어 있어 평균이 0.1개가 된다. '1. 지형과 인간 생활' 단원에서 보여지는 그림은 대부분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지형을 모식적으로 그린 그림들이다. 사진 자료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형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도 많다<sup>5)</sup>.

A 교과서 41쪽의 '하천이 만들어 놓은 여러 지형'에 관한 그림을 보면 하천의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지나가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지형을 위치와 함께 설명해나가고 있어 하천 지형의 형성과정이나 형성 모양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해주고 있다. 역시 A 교과서 45쪽의 '해양 자원의 이용' 그림도 해저 지형의 이름과 그 특징, 그리고 이용 방법까지도 단번에 알게 해주는 좋은 자료로서 '그림'의 장점을 살리고 있다. B 교과서 40쪽의 해안 지형을 나타내는 그림은 사진과 짝짓기를 하면서 특정 지형이 생기는 위치를 짐작케 해주고 있는데, 강원도의 사빈 해안과 황해안의 간석지를 알려주는 그림이면서 가상의 그림지도로 실제 지도와 달라 학습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차라리 실제 지도를 간략화 한 후 지형을 설명해주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 D 교과서의 42쪽 하천의 유량과 관계된 그림은 제목이 없으며 그림에 따른 설명을 읽어도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E 교과서 54쪽의 '해안선의 특색'을 나타내는 그림은 해수면 상승 전과 해수면 상승 후를 나누어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리아스식 해안이 형성되는 원인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F 교과서는 적절하게 만화를 통해 학습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어 학습자가 쉽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G 교과서 70쪽의 태풍이 발생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은 설명이 없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데 아쉬움을

5) H 교과서 50에서 51쪽에 걸쳐있는 그림지도는 그림으로 보는 게 좋을지 지도로 보는 게 좋을지 고민되는 자료인데, 그림으로 처리하여 숫자에 포함시켰다. 또 H 교과서 57쪽의 '안데스 산지의 고도별 식생과 재배 식물'은 4개의 타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그림으로 고도에 따른 식생과 재배 가능 식물을 한 눈에 알게 해주는 좋은 그림으로 높이가 표시되어 있어 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주제 설명이 그림이 주가 된 것이므로 그림으로 포함시켰다.

준다. H 교과서는 42쪽에서 45쪽에 걸친 지형설명에 특정 지형 사진과 함께 지형형성과정을 알 수 있는 그림이 함께 제시되어 지형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 4) 지도

지도는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사상을 축척과 도식 등 일정한 약속 하에 평면인 지면에 그림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이다. 지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기, 지표의 상태, 지하의 구성 물질, 해저의 상황, 지명, 행정구역, 구조물의 명칭 등과 인구, 사회, 교육, 산업, 정치 등의 각종 현상이 있다. 지도는 위치, 방향, 거리 등 공간 개념과 분포, 변천 개념을 형성시키고 지리적 사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 언어 학습의 결과를 시각적인 형태로 바꾸어 주는 구실을 함으로써 제반 현상을 보다 짧은 시간에 비교할 수 있게 하며, 학습 효과가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지도는 학습 내용을 제시해주는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학습의 도구로서도 중요하며 지리학습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교과서별 지도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 교과서가 35개로 제일 많으며, B 교과서가 27개, C, H 교과서가 20개, A 교과서가 18개, E, F 교과서가 각각 16개, D 교과서가 12개로, 가장 많이 수록한 G 교과서와 23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원별 지도 자료의 비중을 살펴보면, '2. 기후와 인간 생활' 단원이 제일 많으며 다음이 1. '지형과 인간 생활' 그리고 '3. 환경과 자연 재해' 순이다. F와 G 교과서만 1, 2 단원의 비중이 같고 나머지는 모두 '2. 기후와 인간 생활' 단원의 비중이 공통적으로 크다. 이것은 연평균 기온이나 강수량 등의 기후와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할 때 통계치를 표시한 지도가 많이 쓰였기 때문이다.

지도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면, A 교과서는 자료 분석 활동이나 조사 활동 등에 지도를 이용한 탐구 문제를 많이 제시하여 지리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37쪽의 세계지도처럼 해발고도에 따라 명암을 달리한 지도를 선보여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컬러 인쇄의 이점을 이용한 지도들을 통해 시각적으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다. B 교과서는 계절별 강수집중률이나, 일기도, 지진·화산대 등의 지도를 통해 내용 이해를 돕고 있다. C 교과서 66쪽의 '열대성 저기압의 주요 발생 지역'을 보면, 지도 설명에 발생 지역에 따라 열대성 저기압의 이름이 달라진다고 적어놓고 있는데 지도에 그 달라지는 명칭을 기입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컬러 지도인 경우 색상의 선택과 제작에 세밀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E 교과서 62쪽의 '우리나라 강수량 분포와 하계 집중도'를 나타낸 지도는 색감이 너무 연하여 수치의 차이를 한 눈에 읽기 어렵고 나타내고자 하는 특징을 잡아내기도 힘들다. F 교과서 68쪽의 탐구활동을 보면 백지도를 제시하여 관련 내용을 지도에 표시하도록 하면서 학습을 돕고 있다. G 교과서 37쪽의 '세계의 산맥과 고원 분포'를 나타내는 세계지도를 보면 산맥은 실선으로 표시하여 알아보기 쉬우나 고원은 글로 표기하였을 뿐 어느 영역까지가 고원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내기 어렵다. 이런

경우 색상을 달리하여 고원지역을 표시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역시 G 교과서 39쪽의 산지 이용을 나타낸 지형도는 등고선이 선명하지 않아 지도를 읽어내기가 힘들다. H 교과서 49쪽을 보면 백지도를 이용하여 문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 활동을 돕고 있으며, 38쪽의 우리나라 지도는 위성사진인 듯 한데 선명도가 떨어져 산지와 평야를 구분해야 하는 주제에 걸맞지 않다.

#### 4. 제7차 교육과정 취지 반영 정도

앞에서 제6차 교육과정과 달리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 중심의 수준별 지도, 주제·문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의 조화, 탐구를 위한 학습 환경의 조성, 정보화 시대의 자료 활용 등이 교수-학습의 강조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취지를 교과서가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교수-학습의 방법 중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의 조화, 정보화 시대의 자료 활용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 1)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의 조화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교과서의 탐구 활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탐구 활동의 주제에 따른 지시된 문제가 학습자 혼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개별화 학습의 예로, 모둠 별로 활동하거나 토론을 원하는 문제라면 협동 학습의 예로 간주하여 숫자를 계산하였다.

전체적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개별화 학습이 협동 학습에 비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II단원 전체에서 개별화 학습에 해당되는 예는 평균 17.5개인데 비해 협동 학습은 4.4개에 머물고 있다.

제6차에 비해 탐구 활동 자체가 훨씬 많아졌는데 주로 개별화 학습을 위한 탐구 활동이 증가했음을 보여 준다. 중단원 별로 보면 개별화 학습은 '1. 지형과 인간 생활' 단원에서 7.5개로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2. '기후와 인간 생활' 단원에서 6.1개, '3. 환경과 자연 재해' 단원에서 3.9개를 차지하고 있다. 협동 학습은 '3. 환경과 자연 재해' 단원에서 1.9개로 제일 많은 편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시사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단위이고 환경을 중시하는 최근의 추세에 부응하여 토론을 유도하는 탐구 활동이 많은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1. '지형과 인간 생활' 단원에서 협동 학습은 1.3개, '2. 기후와 인간 생활' 단원에서는 평균 1개 정도 나타나고 있다.

출판사별로 보면, 개별화 학습의 경우 D 교과서가 30개로 월등히 많은 편이다. 그러나 협동 학습을 보면 D 교과서가 제일 적은 1개로 대부분의 탐구 활동이 개별화 학습에 치우쳐진 것을 알 수 있다. 협동 학습이 실제 수업 중에 활동으로 이어지기에 어려운 점은 있

지만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의 조화 측면에서 협동 학습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H 교과서 또한 개별화 학습은 평균에 이르는 17개인데 비해 협동 학습은 1개로 역시 협동 학습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D, E, H 교과서는 '1. 지형과 인간 생활'과 '2. 기후와 인간 생활' 단원의 협동 학습이 전무하다. 중단원 별로 최소 한번 이상 협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개별화 학습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정보화 시대의 자료 활용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인터넷 주소 수록이다. 인터넷 세대라는 용어에 걸맞게 컴퓨터와 친숙한 학습자들에게 보충 학습이거나 심화 학습을 위해 관련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 여겨진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정보화 시대의 자료 활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에 수록된 인터넷 주소의 수를 조사하여 보았다. 중복되는 사이트인 경우도 다른 중단원에서 소개되는 경우라면 따로 숫자에 포함시켰다.

전체적으로 각 교과서에 실린 인터넷 주소의 수는 평균 4.4개이다. '3. 환경과 자연 재해' 단원이 2.3개로 많은 편이고, '1. 지형과 인간 생활' 단원이 1.3개, '2. 기후와 인간 생활' 단원이 0.9개이다. 교과서 별로 보면 B 교과서가 7개로 제일 많으며, F 교과서가 2개로 제일 적다. 내용을 보면 교과서별 단원별 모두 '기상청'이 10번 소개되어 제일 많이 언급된 주소이다. 그 뒤로 '중앙재해 대책본부'가 4번, '한국 해양 연구소', '해양 수산부', '한국 수자원 공사' 등이 2번 소개되고 있다.

H 교과서의 '국립방재 연구소'라고 소개된 주소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주소로 오류가 보인다. C 교과서에서 '캐나다 화산 관측소'라고 언급된 주소는 '미국 화산 관측소'로 역시 오류다. 또 D 교과서의 '자연 재해 방재 기술 개발 사업단'의 주소는 'http://www.natural-hazard.re.kr'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B 교과서에 '한국 수자원 공사'의 주소는 'http://www.kowaco.go.kr'로 소개되었지만 'http://www.kowaco.or.kr'이 정확한 주소다. 자료를 수록함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인터넷 주소의 소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도 맞닿아 있다. 학습자 스스로 교과서 이외의 자료에서 좀더 폭 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할 때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다양하고 많은 사이트 소개가 필요하며, 교사 모임 등에서 추천하는 해외사이트, 주제와 관련된 정부단체나 시민 단체 사이트 등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 IV. 바람직한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개발을 위한 제언

### 1. 구성체계

#### 1) 단원 전개 방식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대부분의 교과서가 제6차에 비해 학생 활동 부분이 훨씬 많아졌다. 그 제목도 딱딱하기만 한 게 아니라 세상 엿보기, 열린 과제, 분석 활동, 사례 탐구, 집중 탐구 등 다양한 제목을 주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평가된다. 많은 교과서가 퍼즐로 용어를 정리하게 한다거나, 단원정리 문제를 제시하거나, 자기 진단 문제, 선택 활동 과제 등을 제시하여 단원을 마무리하거나, 보다 심도 있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영상세대라 불리는 학습자의 특성에 맞추어 주제와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는 단원 정리도 신선해 보인다. 교사들은 8종의 교과서 중에서 바람직한 부분을 재구성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 2) 분량 비중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가 10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Ⅱ.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단원은 한 출판사만 제외하고 모두 면수로 계산한 비중에서 10%를 넘는다. Ⅱ단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서가 12.9%(40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서가 9.7%(34면)로 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분량에 비해 내용 설명은 제6차에 비해 줄어든 부분이 많다. 많은 지면을 학생활동과 학습 자료가 차지하고 있어 정작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설명은 부족해졌다. 별 다른 참고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주어진 교과내용과 활동만으로 교과 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내용 설명 부분이 좀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내용 구성체계

제7차 교육과정 8종의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중단원까지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동일하지만 소단원에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 하에서는 지형이 먼저 소개되고 기후 단원이 뒤를 이었는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 D 교과서인 경우 소주제를 두지 않고 중단원 아래 학습 내용을 모두 소단원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접근법도 학습 내용을 명료화하는데 유용해 보인다. 소단원 제목은 요점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도 좋지만 단원 주제에 따라서 은유형의 표현이나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 내용요소

### 1) '지형과 인간 생활' 단원

교육과정에 따른 하천과 평야, 산지와 고원, 해안 등의 요소는 8종의 모든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 학습내용을 알아가도록 꾸며진 교과서가 많으나 본문 내용 설명이 빈약하다고 여겨지는 교과서도 있다. 또한 해수면 변동과 관련한 지형 형성과 같은 주제는 소단원으로 제시될 정도의 중요도가 있다고 여겨짐에도 유일하게 한 종의 교과서만이 언급하고 있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형 단원일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 충분히 그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서술식으로 좀 더 충실히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 2) '기후와 인간 생활' 단원

대부분의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충실하고 있지만 시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온실 효과나 엘니뇨에 관한 내용 등은 몇 개의 교과서에서만 다루고 있어서 결국 나머지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는 자신이 그 내용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수밖에 없다. 교과서가 교사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교재라면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3) '환경과 자연 재해' 단원

8종 교과서가 모두 지진, 화산, 홍수, 가뭄(E 교과서에는 언급 없음), 태풍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그 밖의 자연 재해에 대해서는 소개가 없어 아쉬우며, 교육과정에 산사태에 대한 설명이 있음에도 단 두 개의 교과서만이 내용 설명을 하고 있어서 차이가 크다. 결국 교사는 학교에서 선택한 출판사 이외의 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 3. 학습자료

다른 단원에 비해 II단원은 시각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내용이어서 유달리 학습자료가 많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표, 그림, 지도, 사진 등 학습자료의 비중과 내용이 출판사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 1) 도표

도표 자료는 전체 학습자료 중에 7.6%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학습 자료에 비하면 비중이 큰 것은 아니지만 통계치나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는 교과 특성에 비추어 중요도가 떨

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6차에 비해 컬러를 사용할 수 있어 그래프가 다양해지고 보기가 훨씬 쉬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교과서마다 그 편차가 크다. D 교과서가 14개로 가장 많이 실려있는데 비해 E, F, H 교과서는 4개 밖에 수록되지 않아 그 차이가 크다. E, F, H 교과서의 경우 도표의 비중을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도표의 경우 복잡하여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어려운 것도 있으며, 통계자료를 나타낸 도표인 경우 최신 자료가 아닌 경우도 보이며 제목이 없거나, 숫자상의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표를 보는 사람이 이 자료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사진

사진은 학습자료 중에 51.7%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 있는 학습자료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진을 실은 D 교과서가 74개, 가장 적게 실은 C 교과서가 29개로 그 차이가 무려 45개나 된다. 34개를 수록한 E 교과서와 C 교과서는 사진 자료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과서마다 다양한 사진들을 수록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결국 하나의 교과서로만 공부하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 교과서에 수록된 사진을 접할 기회를 잃게 된다. 요즘 교사들 사이에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하여서, 좋은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서 학생들에게 컴퓨터 화상을 통해 보여주는 작업을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 교사들이 유사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 좋은 사진 자료들을 현장의 교사들에게 CD 작업 등을 하여서 자료로 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3) 그림

그림은 직접 사물이나 실제 상황을 볼 수 없거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자료이다. 그림은 전체 학습자료 중에 19.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역시 교과서마다 차이가 커서 가장 많이 수록된 H 교과서가 39개, 제일 적게 수록된 E 교과서가 11개이다. 그림 자료가 타 교과서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나타나는 교과서들은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A 교과서 41쪽과 45쪽의 그림은 학습자료로서의 '그림'의 장점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모델이 되는 그림이다. 이런 우수한 그림 자료들을 제작하고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수록하려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하겠다.

## 4) 지도

지리 수업에 지도는 필수적이며 따라서 학습 내용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지도 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지도는 전체 학습자료 중에 20.8%를 차지하여 사진 다음으로 비중이 크다. G 교과서가 35개로 제일 많으며 D 교과서는 12개로 차이가 크다.

컬러 지도인 경우 색상의 선택과 제작에 주의를 필요로 하며 학습자가 한눈에 나타내고

자 하는 특징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분히 장점을 살리지 못한 지도들이 많이 보인다. 지리학습에 필수적인 좋은 지도를 교과서에 많이 수록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지리부도에 좋은 지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의 자료만 가지고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지리부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수업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 4. 제7차 교육과정 취지 반영 정도

##### 1)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의 조화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탐구 활동이 매우 증가하였다. 이 탐구 활동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의 주안점인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이 얼마나 조화롭게 제시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많은 탐구 활동 중에 주로 개별화 학습을 위한 탐구 주제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현장에서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협동 학습이 보다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 중단원 별로 최소 한번 이상 협동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개별화 학습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정보화 시대의 자료 활용

교과서에 수록된 인터넷 주소를 통해 정보화 시대의 자료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찰해 보았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언급이 없던 것이라 매우 좋은 시도라고 여겨진다. 인터넷 주소의 정확을 기하고, 보다 많은 다양한 사이트가 소개된다면 '자기주도적 학습'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를 열고 풀어낼 수 있는 탐구 활동을 함께 제시한다면 학습 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Ⅱ.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 단원을 대상으로 이 단원이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인 「공통사회 (하) 한국지리」의 해당 단원과 구성체계, 내용요소,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8종 교과서간에 구성체계, 내용요소, 학습자료, 교육과정 취지의 반영 정도를 분석하여 교과서별 차이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8종 교과서의 기본 전개 방식은 '대단원명 - 단원개요 - 중단원명 - 학습목표

소단원명 본문 탐구활동 심화학습 단원 마무리'의 순서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교과서마다 나름대로의 다양한 구성을 보여 학습자의 활동을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탐구활동도 다양한 제목을 붙여서 학습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퍼즐로 용어를 정리하게 하거나 단원정리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 심화과정을 두어 학습자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전체 분량은 교과서간 차이가 컸으며, II단원은 대부분 교과서가 전체 면수 비중 중 10% 이상을 차지하였다. 지형, 기후 등을 설명하는 자연지리 분야가 타 단원에 비해 많은 양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보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간 중단원별 비중도 차이가 나고 있다. 중단원별 비중은 '1. 지형과 인간 생활'이 평균 35.3%, '2. 기후와 인간 생활'이 평균 30.2%, '3. 환경과 자연 재해'가 평균 24%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자연지리 분야에서 지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내용 구성에서는 대단원과 중단원 구성은 8종 교과서 모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으나, 소단원 구성은 교과서마다 차별성을 보여준다. 소단원 숫자는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1개까지 차이가 크지만 많은 교과서가 소단원 아래 다시 소주제를 두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소단원 제목도 요점중심으로 간단히 기술하기도 하지만 서술형, 은유형,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는 등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시도가 보인다.

넷째, 내용요소를 II단원 전체 내용 항목수로 따져보면 H 교과서가 40개, C 교과서가 38개, A 교과서가 37개, E 교과서가 34개, D, F 교과서가 33개, G 교과서가 31개, B 교과서가 29개 순으로 최대와 최저의 차이는 11개나 된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요소를 반영하고는 있지만 내용 설명이 빈약하거나 시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수의 교과서만 내용 언급을 하고 있는 등 한계가 있다. 별다른 참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 교과서를 통해 충분히 교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요소가 부족한 교과서인 경우 내용을 서술식으로 좀 더 보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다섯째, 도표, 사진, 그림, 지도 등 학습자료를 가장 많이 제시한 G, H 교과서와 가장 적은 E 교과서와의 차이는 54개로 그 격차가 심하다. 자연지리 분야라는 단원 특성상 II단원은 사진 자료가 51.8%로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사진 자료가 제일 많이 제시된 D 교과서는 74개, 제일 적은 C 교과서는 29개로 그 편차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다. 그 외 도표가 7.5%, 그림이 19.0%, 지도가 21.7%로 사진자료에 비해 비중이 낮아 개선이 요구된다. 학습자료는 무엇보다도 표현된 수치 등이 정확해야 하고 그 자료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을 학습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진 자료는 선명함과 참신함이 필요하며, 도표 자료는 정확하고 최근에 나온 수치라야 한다. 그림과 지도 자료는 선명하면서도

간결함 등을 살린 것이 좋다. 이런 특징을 가진 보다 좋은 학습자료들을 개발하고 교과서에 수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개별화 학습과 협동 학습의 조화, 정보화 시대의 자료 활용 측면을 통해 제7차 교육과정 취지의 반영 정도를 살펴보았는데 과거에 비해 탐구 활동이 늘었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소개하는 시도도 좋아 보인다. 협동 학습이 가능한 탐구 활동의 비중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가 소개된다면 학습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제7차 교과서는 각 교과서마다 사진 자료를 비롯한 우수한 학습자료와 탐구 활동이 많다. 그러므로 수업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선택한 교과서 이외에 타 교과서의 학습자료와 탐구 활동을 적극 이용한다면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출판사마다 교과서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를 보급하는데 이것을 CD로 만들어 함께 보급한다면 지도서의 내용을 학습용으로 일일이 제작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양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 즉 문장 서술 방식이나 사진·도표 등 학습자료의 질 등을 평가하여 교과서간의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시도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교육부, 1995,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 과정 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1997, 사회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 2000,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4. 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재한 외, 200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법문사.
- 김주환 외, 2000, 공통사회(하) 한국지리 교과서, (주)교학사.
- 김주환 외, 200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 박종희 외, 2002,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천재교육.
- 손봉호 외, 200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두산.
- 오경섭 외, 200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 최병모 외, 200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 황만익 외, 2001,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지학사.
- 허우금 외, 2002,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주)교학사.

## 〈논문〉

- 김란주, 1999, 현행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 내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연, 1999,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 고등학교 지리과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라영숙, 2002, 제7차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1 교과서별 내용 비교·분석: <IV. 북부지방의 생활> 단원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홍기, 1978, 고등학교 지리교육의 자연지리 내용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1995,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환경관련 내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종화, 1996,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지리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평가,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애, 1997, 초·중·고 교과서 세계지리 단원의 학습자료 분석: 사진, 지도, 도표의 경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정규, 2002, 제7차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지리내용의 비교 분석: <III.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단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원택, 1997, 한·중·일 세계지리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 국제 이해 교육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승환, 1998, 지리교과서의 그래픽 자료 비교 연구: 제5,6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진, 1997, 고등학교 공통사회(한국지리) 교과서 분석: 생활공간 단원의 학습목표·내용·평가문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주희, 1995, 고등학교 지리교과서 문화단원 내용 비교·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정, 1998, 고등학교 공통사회(한국지리) 교과서 비교·분석: 생활공간의 변화 단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일순, 1990,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의 비교 분석: 자연과 산업 단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